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7. 03. 13. ~ 2017. 03. 19.

전남농업정보

128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토마토 · 딸기 · 오이 출하 및 가격전망
- 수박 재배의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산, 알스트로메리아 일본수출 본격화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딸기 원원묘 분양 농가 육묘기술 교육
- 매실 문제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서둘러야

정책동향

- 논에 심은 콩 판로 걱정 없어요
- 전남도, 축산 농장영업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사업신청 및 홍보

- 텃밭에 식물 이름표 달아주세요
-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식품에 도전하세요!



전남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25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3~16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4mm)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토마토·딸기 출하 및 가격전망
- ▶ 오이 출하 및 가격전망
- ▶ 수박 재배의향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전남산, 알스트로메리아 일본수출 본격화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3

- ▶ PB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지경영체의 특성 및 판매전략
- ▶ 패션프루트 화분증량제 선발
- ▶ 찻잎 수확방법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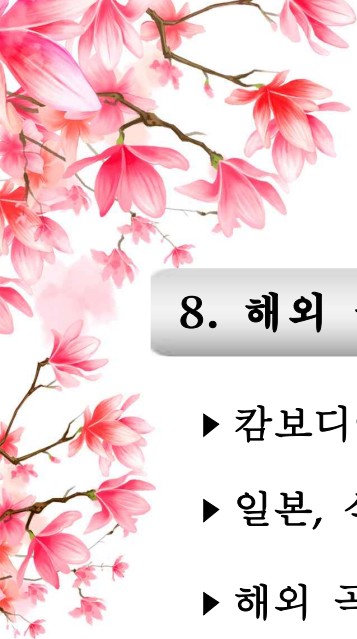
- ▶ 소득분석 녹차 경영기록장 개발 활용
- ▶ 딸기 원원묘 분양 농가 육묘기술 교육
- ▶ 안전농산물 생산! 깨끗한 물부터
- ▶ 매실 문제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서둘러야
- ▶ 일기예보 확인하고 플럼코트 인공수분 하세요
- ▶ 쌈채소로 좋은 곰취 새 품종 그린베어 개발
- ▶ 양송이 전용 유통용기 나왔다
- ▶ 득보다 실이 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는 그만!

6. 정책 동향 25

- ▶ 전남도, 올해 풀사료 생산에 838억 지원
- ▶ 논에 심은 콩 판로 걱정 없어요
- ▶ 전남도, 축산 농장영업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추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9

- ▶ 나주시, 국내 육성 배로 새로운 고객 창출
- ▶ 광양시, LF로컬푸드마켓 개점 2개월 만에 3억원 매출 달성
- ▶ 담양군, 직불금 신청하세요
- ▶ 곡성군, 『골든퀸 3호』 재배농가 교육 실시
- ▶ 고흥군, 안정적 농촌 정착 도우미 역할 톡톡
- ▶ 강진군,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 준공
- ▶ 해남군, 간 기능 개선 『밀크시슬』 국산화 박차
- ▶ 영암군, 2017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 ▶ 영광군, 브랜드쌀 판매 업무협약 체결
- ▶ 장성군, 일손 걱정 없는 『농촌인력지원센터』 문 열어



8. 해외 농업정보 39

- ▶ 캄보디아, 농기계 시장 전망
- ▶ 일본, 식물공장에 기업 참여 확대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3. 20.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최저점에서 회복한 이후 새로운 뉴스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최저점에서 회복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브라질의 기록적인 대두 수확 전망으로 하락하였으나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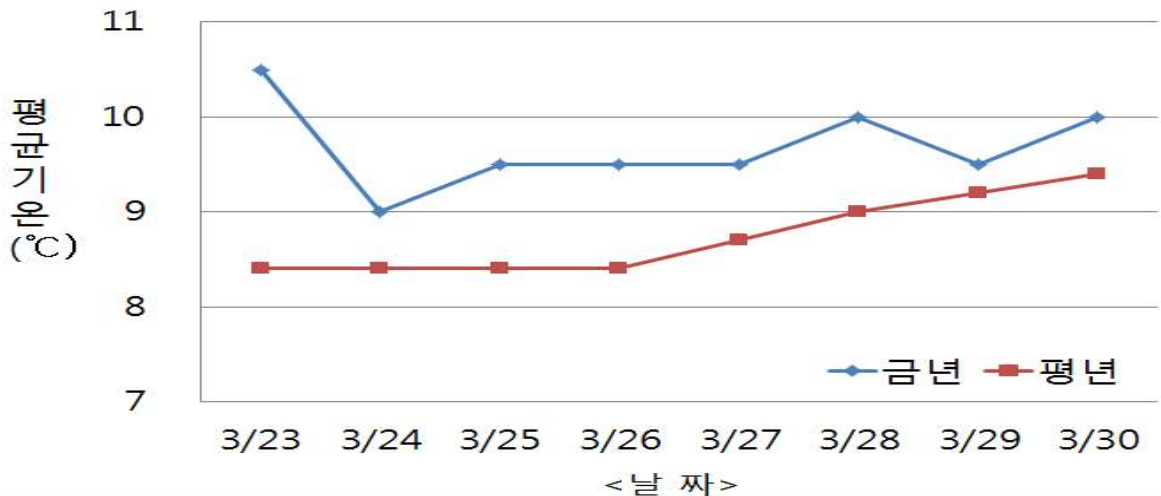
- ▶ 가축질병 발생동향
- ▶ 식물병해충 발견 현황이 한 눈에 지리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분포도 작성
- ▶ 텃밭에 식물 이름표 달아주세요
- ▶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식품에 도전하세요!
- ▶ 청탁금지법 고민될 땐 『안심화분』 확인하세요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3월 23일 ~ 3월 30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9.7℃ (평년대비 1℃ 높음)
- 최고기온 : 15℃ (평년대비 0.2℃ 높음)
- 최저기온 : 4.4℃ (평년대비 0.7℃ 높음)
- 강 수 량 : 1.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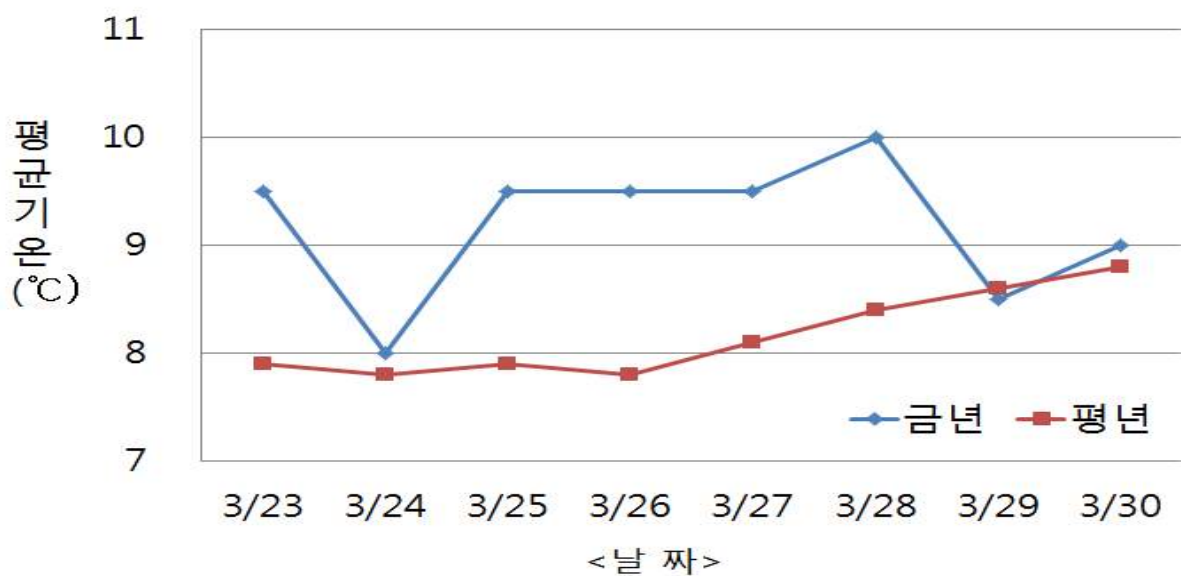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7	8.7	1.0	15.0	14.8	0.2	4.4	3.7	0.7	1.8
3. 23.(목)	10.5	8.4	2.1	16.0	14.2	1.8	5.0	3.7	1.3	2.9
3. 24.(금)	9.0	8.4	0.6	14.0	14.1	-0.1	4.0	3.6	0.4	2.6
3. 25.(토)	9.5	8.4	1.1	13.0	14.2	-1.2	6.0	3.5	2.5	2.3
3. 26.(일)	9.5	8.4	1.1	14.0	14.3	-0.3	5.0	3.4	1.6	1.8
3. 27.(월)	9.5	8.7	0.8	15.0	14.9	0.1	4.0	3.5	0.5	1.2
3. 28.(화)	10.0	9.0	1.0	16.0	15.3	0.7	4.0	3.7	0.3	1.1
3. 29.(수)	9.5	9.2	0.3	16.0	15.5	0.5	3.0	3.9	-0.9	1.1
3. 30.(목)	10.0	9.4	0.6	16.0	15.7	0.3	4.0	4.2	-0.2	1.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3월 23일~3월 30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9.2℃ (평년대비 1.5℃ 높음)
- 최고기온 : 13.4℃ (평년대비 0.1℃ 낮음)
- 최저기온 : 5℃ (평년대비 0.8℃ 높음)
- 강수량 : 1.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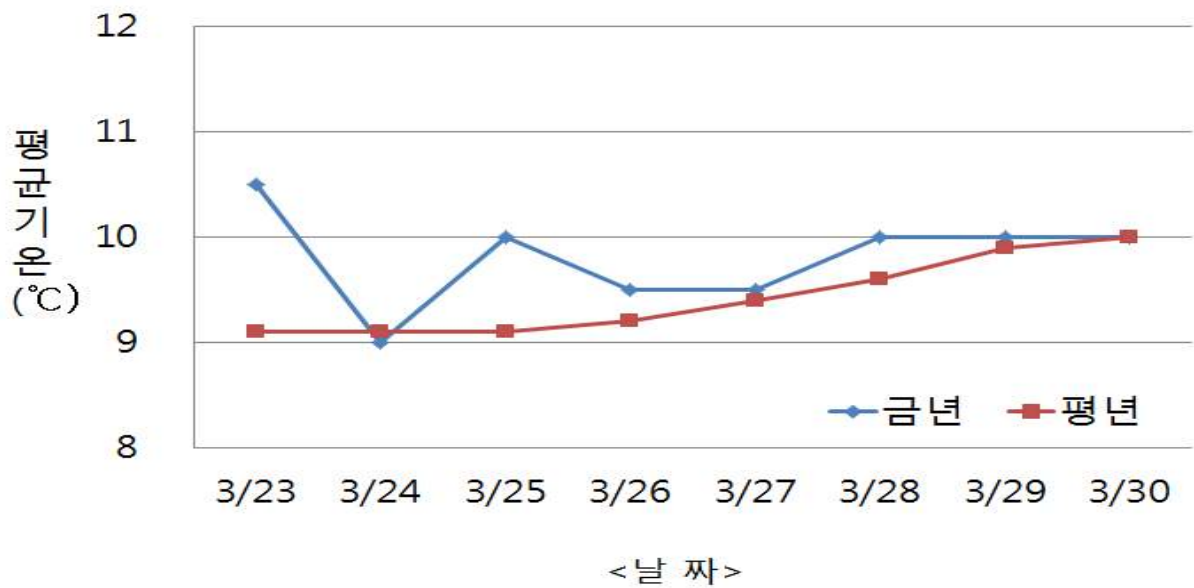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2	8.2	1.5	13.4	13.5	-0.1	5.0	4.2	0.8	1.7
3. 23.(목)	9.5	7.9	5.0	13.0	13.0	0.0	6.0	4.1	1.9	2.7
3. 24.(금)	8.0	7.8	0.2	12.0	13.0	-1.0	4.0	4.0	0.0	2.4
3. 25.(토)	9.5	7.9	1.6	12.0	13.0	-1.0	7.0	4.0	3.0	2.2
3. 26.(일)	9.5	7.8	1.7	13.0	13.0	0.0	6.0	3.9	2.1	1.6
3. 27.(월)	9.5	8.1	1.4	14.0	13.6	0.4	5.0	4.1	0.9	1.1
3. 28.(화)	10.0	8.4	1.6	15.0	14.0	1.0	5.0	4.3	0.7	1.0
3. 29.(수)	8.5	8.6	-0.1	14.0	14.1	-0.1	3.0	4.6	-1.6	1.1
3. 30.(목)	9.0	8.8	0.2	14.0	14.3	-0.3	4.0	4.8	-0.8	1.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3월 23일 ~ 3월 30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9.8℃ (평년대비 0.4℃ 높음)
- 최고기온 : 13.3℃ (평년대비 0.3℃ 낮음)
- 최저기온 : 6.4℃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2.2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8	9.4	0.4	13.3	13.6	-0.3	6.4	6.0	0.4	2.2
3. 23.(목)	10.5	9.1	1.4	14.0	13.1	0.9	7.0	5.8	1.2	3.1
3. 24.(금)	9.0	9.1	-0.1	12.0	13.0	-1.0	6.0	5.8	0.2	2.6
3. 25.(토)	10.0	9.1	0.9	12.0	13.2	-1.2	8.0	5.8	2.2	2.5
3. 26.(일)	9.5	9.2	0.3	13.0	13.4	-0.4	6.0	5.7	0.3	1.8
3. 27.(월)	9.5	9.4	0.1	13.0	13.6	-0.6	6.0	5.9	0.1	1.5
3. 28.(화)	10.0	9.6	0.4	14.0	13.8	0.2	6.0	6.2	-0.2	1.6
3. 29.(수)	10.0	9.9	0.1	14.0	14.2	-0.2	6.0	6.3	-0.3	1.9
3. 30.(목)	10.0	10.0	0.0	14.0	14.3	-0.3	6.0	6.4	-0.4	2.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토마토(일반 · 방울토마토)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3월 일반토마토의 출하량은 단수가 비슷하나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3월 원형 방울토마토의 출하량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전망

- 3월 일반토마토의 도매가격은 전년 1만 7,200원과 전월 1만 6,800원보다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3천~1만 5천원으로 전망된다.
- 3월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2만 3,500원보다 낮지만 전월 1만 7,300원과 비슷한 상품 5kg 상자에 1만 6천~1만 8천원으로 전망된다.

딸기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3월 딸기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모두 증가하여 전년보다 9%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3월 딸기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1만 4,900원과 전월 1만 5,300원보다 낮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3천~1만 4천원으로 전망된다.

오이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3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5%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3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전년 수준이나, 단수가 늘어 전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3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4만 6,600원과 전월 4만 2,200원보다 낮은 상품 100개에 3만 6천~4만원으로 전망된다.
- 3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2만 8,400원과 전월 2만 5,400원보다 낮은 상품 50개에 2만~2만 3천원으로 전망된다.

수박 재배의향

□ 재배의향

- 시설수박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 감소한 1만 849ha인 반면, 노지수박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로는 3~5월 주 정식지인 전북 고창에서 봄배추·양배추 등으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였고, 영남에서는 돌려짓기 등의 이유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산, 알스트로메리아 일본수출 본격화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꽃 전문 수출업체인 (주)제이제이에프를 통해 나주·광양에서 생산되는 절화 알스트로메리아의 일본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17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절화 알스트로메리아 일본 수출을 위해 화훼 수출업체인 (주)제이제이에프와 도내 재배 농가들과 연계하여 수출조건, 수출단가, 검역 등 협의회를 통해 우선 광양에서 생산되는 절화 알스트로메리아를 일본으로 보내는 등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전남의 절화 알스트로메리아는 30농가가 9ha를 재배, 전국의 68%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나주·광양에서 생산되는 알스트로메리아는 1주일에 20천본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또한 품질이 우수하여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전남의 대표 수출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알스트로메리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규격품 생산 및 검역, 농약안전성 등 전문가 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참여농가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3. 20.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20)	1주일전 (03/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2,133	↓ 12.2	↓ 24.5
	콩(백태)	35kg	172,000	172,000	172,000	150,000	158,400	↑ 14.7	↑ 8.6
	고구마(밤)	10kg	26,000	26,000	25,600	26,600	26,720	↓ 2.3	↓ 2.7
	감자(수미)	20kg	34,800	36,200	35,200	32,200	28,747	↑ 8.1	↑ 21.1
채소류	배추(월동)	1kg	950	930	994	1,200	861	↓ 20.8	↑ 10.3
	양배추	10kg	11,400	11,200	12,000	7,250	6,800	↑ 57.2	↑ 67.6
	오이(다다기계통)	10kg	25,667	24,667	30,667	36,133	33,307	↓ 29.0	↓ 22.9
	애호박	8kg	16,600	18,200	22,040	28,250	26,047	↓ 41.2	↓ 36.3
	건고추(화건)	60kg	570,000	570,000	560,000	780,000	836,667	↓ 26.9	↓ 31.9
	풋고추	10kg	47,000	48,400	55,320	52,500	64,760	↓ 10.5	↓ 27.4
	마늘(깐마늘)	20kg	142,000	143,000	147,000	163,000	117,707	↓ 12.9	↑ 20.6
	양파	20kg	27,000	28,000	26,720	32,400	19,584	↓ 16.7	↑ 37.9
	당근	20kg	37,600	43,600	52,200	25,200	23,320	↑ 49.2	↑ 61.2
	대파	1kg	2,680	2,980	2,596	2,645	1,805	↑ 1.3	↑ 48.5
	파프리카	5kg	24,200	27,400	30,680	27,450	30,163	↓ 11.8	↓ 19.8
	딸기	1kg	7,100	7,900	9,500	8,650	8,657	↓ 17.9	↓ 18.0
	토마토	10kg	30,000	33,800	36,560	39,550	35,690	↓ 24.1	↓ 15.9
	방울토마토	5kg	21,200	21,600	21,600	30,400	28,883	↓ 30.3	↓ 26.6
	수박	1개	17,400	19,400	18,880	19,100	16,660	↓ 8.9	↑ 4.4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8,400	38,400	39,600	37,000	48,156	↑ 3.8	↓ 20.3
	배(신고)	15kg	41,000	41,400	39,720	44,000	44,573	↓ 6.8	↓ 8.0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20)	1주일전 (03/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19,000	529,000	549,867	↓ 1.9	↓ 5.6
	느타리버섯	2kg	12,400	10,800	10,280	11,900	11,640	↑ 4.2	↑ 6.5
	새송이버섯	2kg	8,100	8,000	8,120	9,000	8,760	↓ 10.0	↓ 7.5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26	7,752	7,873	8,013	6,224	↓ 2.3	↑ 25.7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29	1,990	2,008	1,831	1,774	↑ 10.8	↑ 14.4
	닭고기	1kg	5,681	5,771	5,439	5,582	6,077	↑ 1.8	↓ 6.5
	계란(특란)	30개	7,299	7,258	7,654	5,369	5,517	↑ 35.9	↑ 32.3
	우유	1리터	2,529	2,529	2,527	2,549	2,475	↓ 0.8	↑ 2.2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3. 20.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540 천원	5,501 천원	5,839 천원	↑ 0.7	↓ 5.1
	거세	5,772 "	5,834 "	6,949 "	↓ 1.1	↓ 16.9
송아지 (6~7월)	암	2,824 "	2,773 "	2,847 "	↑ 1.8	↓ 0.8
	수	3,398 "	3,342 "	3,415 "	↑ 1.7	↓ 0.5
육우(600Kg)		2,574 "	2,700 "	3,693 "	↓ 4.7	↓ 30.3
젖소수송아지(7일령)		168 "	153 "	236 "	↑ 9.8	↓ 28.8
돼지(110kg)		377 "	366 "	349 "	↑ 3.0	↑ 8.0
육계(원/kg)		1,982 원	2,313 원	1,373 원	↓ 14.3	↑ 44.4
계란(원/특란10개)		1,747 "	1,702 "	917 "	↑ 2.6	↑ 90.5
오리(원/kg)		2,500 "	2,500 "	1,667 "	-	↑ 50.0

※ 한우(거세우) : 6,724천원/마리(△952)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398)

- 육우 3,798천원, 돼지 297천원,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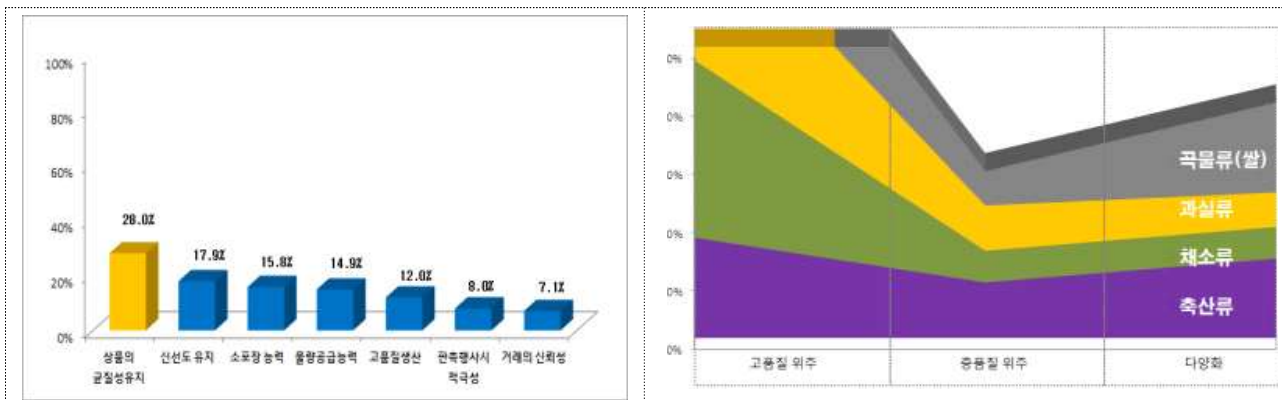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PB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지경영체의 특성 및 판매전략

□ 개발기술 내용

- PB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지경영체의 특성 및 판매 전략은 상품의 균질성 유지 24.2%, 물량공급능력 17.6%, 신선도 유지 17.6%, 소포장 능력 17.3%, 고품질생산 9.4%, 거래의 신뢰성 8.5%, 판촉행사시 적극성 4.5% 순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의 PB농산물 품목별 개발전략으로는 다양화가 높은 품목은 축산과 곡물류이고, 고품질은 채소와 과실에서 높음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PB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지경영체의 특성 및 판매전략 정보제공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대형마트와 PB 농식품 거래의향이 있을 경우 산지경영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교섭력 향상으로 가격설정 우위성 확보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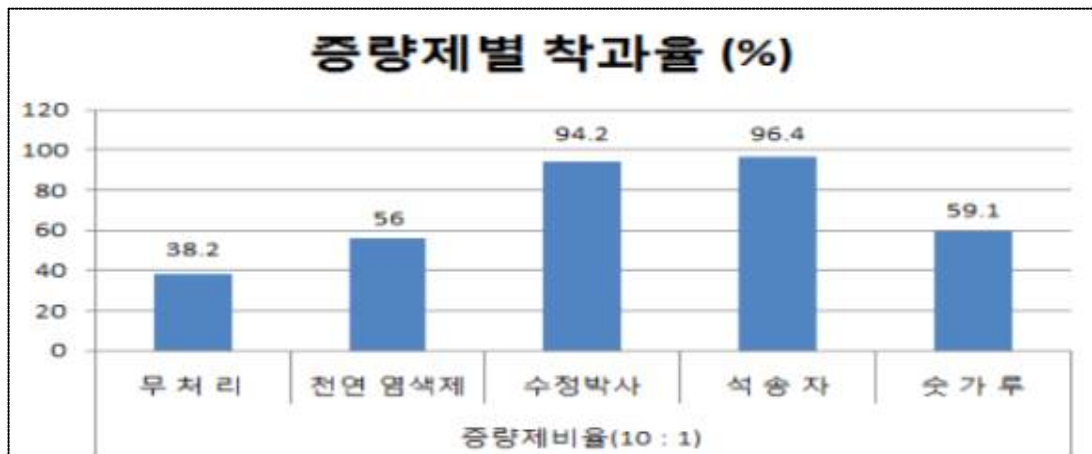
■ 패션프루트 화분증량제 선발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후온난화에 따른 전남지역 패션프루트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수분은 14.7%로 상품과 안전생산이 어려움
- 시설재배 농가가 인공수분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꽃가루를 현장에서 채취하여 암술에 수분하는 형태이므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됨

□ 개발기술 내용

- 비닐하우스 시설 내 패션프루트 인공수분 화분증량제별 수분효과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비닐하우스 연동재배 인공수분을 통한 상품과 비율 제고
- 아열대 과수 패션프루트 현장기술 지원 및 교육 시 방법 제공
- 무가온재배기술 패션프루트 매뉴얼 제작에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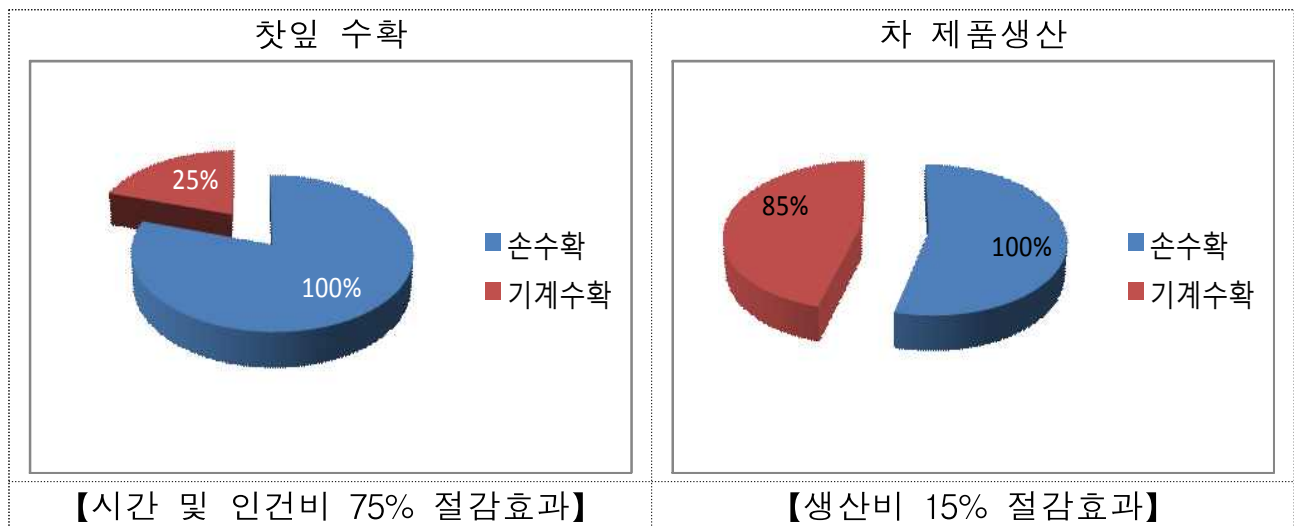
- 인공수분 노동력 70% 절감 및 고품질과 생산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재옥, 이소미

■ 찻잎 수확방법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 개발기술 내용

- 찻잎 손수확에 비하여 2인용 기계수확 시 찻잎수확이 쉽고, 소요 인력이 손수확에 비하여 시간과 인건비가 75% 절감효과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차나무 재배농가 교육 및 현장기술 지도 활용
- 농촌일손 절감을 위한 찻잎 손수확에 비하여 기계수확 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찻잎 기계 수확 인건비 절약 : 75% (손 40 → 기계 10명/1ha)
- 차 제품 생산비 절감 효과 : 15% (손 1,258 → 기계 1,063천원/10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 소득분석 녹차 경영기록장 개발 활용

□ 개발기술 내용

- 특용·약용작물 경영기록장 구성은 소득분석이 용이하도록 농장일반 현황, 판매일지, 경영비 기록, 영농일지, 경영성과 5개 부분으로 되어 있음

【소득분석 녹차 경영기록장 구성 및 기록 내용】

경영기록장 구성	기록 내용	소득자료 분석 도출 내용
1.농장일반현황	- 경영주 현황, 경영규모 ☞ 시설, 농기계 투자비, 해당 작목 사용비율 등	농기계 및 시설 감가상각비와 자본이자
2.판매일지	- 일자별 품목, 중량, 수량, 금액 ☞ 등급별 분류 가능	조수입
3.경영비 기록	- 경영비를 소득분석표 순서로 기재 ☞비목별로 분류 기재 원칙	경영비
4.영농일지	- 주요 작업내용, 노동시간, 기상, 생육상황, 교육, 회의, 영농참고자료 기록 등 ☞ 1주 1페이지에 기록	노동투입시간
5.경영성과	- 소득분석표, 감가상각비와 고정자본용역비 계산표 ☞ 양면에 기록 원칙	소득분석, 생산비, 본(분)당 생산비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생산비 절감 실천농가, 정부자금 수혜농가에게 보급 및 기장 지도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농가경영기록장 기록이 간편하면서도 농가 스스로 경영성과 작성과 경영개선에 활용
- 기록장 구성 및 기록내용이 통일된 세부 품목별 소득분석 맞춤형 경영기록장 개발에 이용하고 기장농가 확산과 소득조사에 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손장환

■ 딸기 원원묘 분양 농가 육묘기술 교육

- 전남 도내 딸기 우량 묘 보급체계 단계별 내실화 강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딸기 원원묘(모주) 분양 농가를 대상으로 원원묘(모주) 관리방법, 육묘상 소득방법, 정식기 병방제 및 물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3월 16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국내 육성 딸기 우수품종 우량 묘 보급 사업』으로 생산되는 딸기 원원묘(모주)의 보급체계 내실화 강화를 위해 계획되었다.
- 또한 육묘기간 동안 육묘 중·후기 양분관리, 병방제 요령, 고온기 환경 관리 등의 교육을 시기별로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육묘 농가에 딸기 최신 육묘 기술 습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묘 기술 향상으로 딸기 우량묘 생산비율을 높이고 딸기 재배 농가에 건전한 정식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이어져 육묘 농가뿐만 아니라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모주(원원묘)를 '11년부터 딸기원묘증식사업소와 딸기육묘전문영농법인체에 매년 5만 주씩 보급하고 있으며 농가 자체 자가묘에 비해 보급묘가 묘소질이 뛰어나 수량이 18% 증수되는 장점이 있어 농업현장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미향 연구사는 육묘 단계별 기술교육과 함께 육묘 현장 평가 및 정기적인 현장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원원묘 생산 보급 목적에 맞게 우량묘가 생산되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안전농산물 생산! 깨끗한 물부터

- 전남도내 농업용 하천·지하수 수질조사 본격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의 일환으로 전남도내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수 및 지하수의 수질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업용수 수질 변동조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2년 1주기로, 2007년 이후 현재까지는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하천수 37지점, 지하수 20지점을 정점화하여, 하천수는 매년 홍수 전 갈수기인 4월, 홍수기인 7월, 홍수 후 갈수기인 10월로 연 3회, 지하수는 4월과 7월로 연 2회로 나누어 수질변동 자료를 확보하고, 그 결과를 OECD 등 국제기구 대응 및 수질보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지난해 도내 농업용 하천수의 유기물 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3으로 허용치(9mg/L 이하)보다 훨씬 낮았으며, 지하수의 오염지표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질산성질소는 7.5로 허용치(20 mg/L)이하로 조사되어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카드뮴, 납도 검출한계 미만의 극미량 수준으로 매우 낮고, 비소와 수은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매실 문제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서둘러야

- 지난해 피해과 제거가 가장 중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매실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매실, 복숭아, 살구 등 핵과류의 딱딱한 씨 속에서 살아가는데, 최근 4~5년간 매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른벌레가 과일 속에 알을 낳고, 깨어난 애벌레는 아직 단단하지 않은 핵을 뚫고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배유를 먹고 자란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과일은 대부분 갈변되고 떨어지며, 열매 가지가 말라죽기도 한다. 피해 열매 속에서 다 자란 애벌레는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번데기가 된 후 보통 3월 말부터 어른벌레가 돼서 새로운 전염원이 된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이 해충의 생태를 연구하여 어른벌레의 방제적기를 찾았는데, 과일 직경이 1cm 내외일 때 적용약제 살포를 권장하였다. 왜냐하면 재배지역이나 품종에 따라 꽃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땅에 떨어지거나 나무에 매달린 피해 과일을 반드시 제거해서 다음해 전염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일기예보 확인하고 플럼코트 인공수분 하세요

- 꽃 피는 기간 중 포근한 날 인공수분 해야 착과량 많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꽃 피는 시기가 빠르고 꽃가루가 없는 플럼코트의 안정적 결실을 위해선 반드시 인공수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특히 전남 나주를 포함해 꽃 피는 시기가 빠른 남쪽지역에서는 꽃 피는 시기에 저온과 서리 피해가 발생해 수확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인공수분으로 충분한 착과량을 확보해야 한다.
- 올해 플럼코트 『하모니』 품종의 꽃 피는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1~2일 정도 빠른 3월 하순(전북 완주 기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해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대기도 불안정해 언제 인공수분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 4~5년생 플럼코트 나무의 경우 하나의 꽃덩이가지(화속상 단과지)에 평균 15개 이상의 꽃이 무리를 이뤄 피고, 첫 꽃이 피기 시작해 마지막 꽃이 피기까지 10~15일 이상 걸린다.
- 전체 꽃의 70% 정도가 피는 만개기의 일기예보를 확인한 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의 기온이 15℃ 이상이고 바람이 없는 날을 선택해서 인공수분 하는 것이 좋다. 평균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는 날은 애써 인공수분을 해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
- 인공수분을 할 때에는 하나의 꽃덩이가지 당 2~3개의 꽃에 살구 꽃가루를 인공수분 시키면 열매숙기 노력도 줄이면서 충분한 착과량을 확보할 수 있다.



- 플럼코트(plumcot)는 자두와 살구의 중간잡종으로 새콤한 살구의 맛과 자두의 향긋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고기능성 과실이다.
- 농촌진흥청 과수과는 『하모니』 품종에 이어 속이 붉은 『티파니』와 망고를 닮은 『심포니』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완숙 전에도 신맛이 적은 조생종 『샤이니』 품종은 2016년 통상실시를 마치고 올 가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플럼코트는 2012년 전남 나주지역에 처음 보급해 전국적으로 약 150ha 이상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체의 관심이 높아 당분간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수농가에서 플럼코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묘목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올 봄에 서둘러 심기보다는 대목이 정확하고 눈도 충실한 묘목을 늦가을에 구해 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현재 대부분 플럼코트 묘목은 복숭아 실생에 접목해 판매하고 있으나 매실 또는 영양계 자두 대목에 접목한 묘목도 판매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과수과 남은영 농업연구사는 “플럼코트는 꽃 피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길고, 꽃이 핀 뒤 수정 능력도 며칠 유지되므로 꽃이 피면 서둘러서 인공수분을 마치고보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개화기간 중 포근한 날에 해줘야 착과량이 많아진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쌈채소로 좋은 곰취 새 품종 그린베어 개발

- 씹쌀한 맛과 향이 돼지고기와 잘 어울려... 흰가루병에 강하고 수량성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0여년의 연구 끝에 대표적인 곰취 품종 『곤달비』의 약점을 보완한 새 품종 『그린베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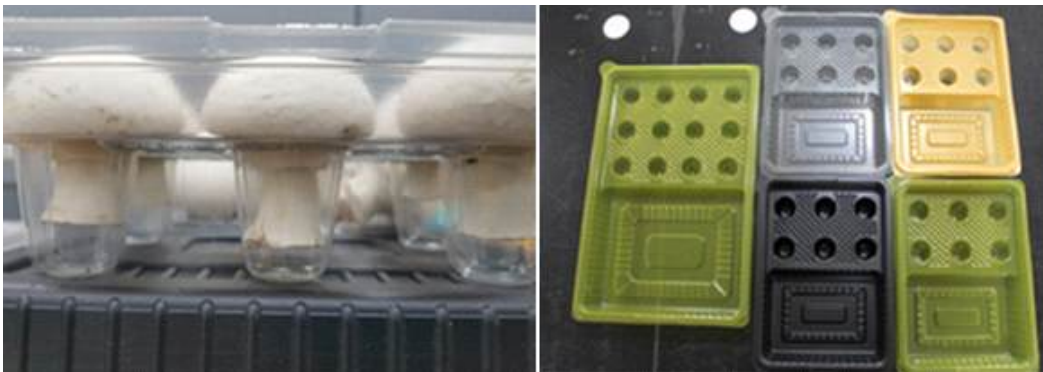
- 곰취 품종 중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곤달비』는 흰가루병에 취약한 편이다. 또한 하고현상으로 생육이 좋지 않아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 『그린베어』는 『곤달비』에 비해 잎이 두껍고 향이 강하며 특유의 씹쌀한 맛이 있어 돼지고기와 먹는 쌈채소로 잘 어울린다. 또한 데치고 난 뒤에도 향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나물로 먹어도 좋다.
- 또한 흰가루병에 강해 여름철에 식물체가 말라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연작장해 발생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생육이 왕성해 재배하기에 좋다.
- 『그린베어』는 적습지에서 잘 크는 일반 곰취와 습지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육이 왕성한 『한대리곰취』를 교배해 육성한 품종이다.
- 『그린베어』 품종은 조직배양으로 대량 증식해 2018년부터 각 농업 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양송이 전용 유통용기 나왔다

- 버려지던 양송이대 유통으로 수확물 손실을 20% 감소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양송이를 수확한 뒤 버려지던 대를 갓과 함께 유통해 수확물의 손실률을 줄이는 전용 유통용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한 양송이 전용 유통용기】

- 양송이 유통 시 관행적으로 모양만으로 품질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확물의 약 20%에 해당하는 대(버섯 몸통) 부분이 현장에서 버려졌다. 버려지는 만큼 농가소득이 줄어든다.
- 이에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는 갓과 대를 함께 활용하기 위해 영양적인 품질 분석과 품질 변화 등의 실험을 실시했다.
- 갓과 대의 영양적인 품질을 분석해보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함량은 100g당 갓과 대에서 차이가 없고, 항산화 능력 수치에서도 갓은 42.1%, 대는 45.1%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이번에 개발한 대가 그대로 살아있는 양송이 전용 유통용기를 사용하면 농가에서는 900kg 수확 시 약 13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된 용기는 『버섯 유통용기』로 특허출원 됐으며 지난 2월 업체로 기술이전 해 오는 4월 제품이 출시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득보다 실이 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는 그만!

- 해충 방제 11%, 익충 피해 89%... 생태환경과 천적류 복원 늦어져 -

-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관행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효과는 낮고, 오히려 익충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면 애멸구,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등을 일으키는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거미, 툇툇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논·밭두렁 3m²의 면적에 서식하는 곤충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총 8,164마리가 나왔는데 이중 애멸구, 끝동매미충 등 해충은 908마리에 불과했고, 거미와 툇툇이 등 이로운 곤충은 7,256마리로 조사됐다.
- 특히 벼물바구미·애멸구와 같은 해충은 야산의 땅속과 논밭두렁 잡초 흙속 뿌리에 붙어 월동하기 때문에 불을 놓아도 잘 죽지 않고, 오히려 논두렁에 서식하는 거미와 툇툇이 등 이로운 곤충만 태워 죽이게 된다.
- 논·밭두렁은 태운 지 60일이 지나야 식생과 동물상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해 75일이 지난 뒤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 또한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봄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142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51건(36%)은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져 태우는 행위의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전남도, 올해 풀사료 생산에 838억 지원

- 친환경축산소 품질 고급화 위해 사료작물 재배 확대... 110% 자급률 기대 -

- 전라남도는 한우젓소 등 초식 가축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풀사료(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 총 838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은 국산 풀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해 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을 지원하며, 양질의 풀사료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올해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54억원(전국의 31%로 1위) 포함 총 838억원을 확보했다. 풀사료 생산용 공동 기계장비 예산 120억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420억원, 전문단지 조성 223억원 등 8개 세부사업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전남 경지 면적(16만 6천ha)의 30%인 4만 9천ha에서 85만톤을 수확한다는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벼짚 생산량 32만톤을 합해 총 117만톤의 풀사료를 생산, 전남지역 가축 사육에 필요한 풀사료 총량(106만 3천톤)을 초과해 자급률 110%를 달성하게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논에 심은 콩 판로 걱정 없어요

- 정부 콩 수매량 늘리고 가격도 3.7% 인상... 6월 9일까지 수매약정 -

- 전라남도는 올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확대 재배방침에 따라 논에서 생산되는 콩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수매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산 국산 콩 수매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 콩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5천톤 늘어난 3만톤이다. 이 가운데 1만톤은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해 생산한 것을 별도로 배정했다.
- 수매 가격은 국산 콩 생산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7% 인상한 1등 기준 일반콩 kg당 4천 11원, 콩나물콩은 4천 165원이다.
- 콩 정부 수매를 바라는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수매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서 생산한 콩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매한다.
- 또 콩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국립종자원에서 생산된 보급종 1천 326톤을 3월 중 농가 신청을 받아 4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확대로 올해 논 콩 재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콩 종자 확보 등 사전에 영농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논에 타 작물 재배 추진으로 논에 콩을 재배한 면적은 106ha로 전체 논 타 작물 재배 면적의 33%를 차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축산 농장영업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 사육 도축·가공·유통 등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 -

- 전라남도는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들여 축산농장과 영업장 등 114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한·육우, 젓소, 돼지, 닭·오리, 부화장 등 축산농가와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등 축산물 영업자다. 전문 컨설팅 비용은 한 곳당 500만~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0%가 보조 지원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축산농가 5곳 이상에서 단체컨설팅을 추진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에게는 사후관리 컨설팅 비용으로 80만원을 지원해준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전문 컨설팅업체로부터 HACCP 기준서 작성, 농장과 영업장 특성에 맞는 위해요소 분석과 관리, 각종 검사비 및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종사자 HACCP 교육,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 운용 등 모든 과정에 대해 HACCP 인증 완료까지 컨설팅을 받는다.
- 전남에선 2016년까지 농장과 축산물 영업장 1천 199개소가 HACCP 인증농장(업소)으로 지정받았다. 전라남도는 2020년까지 1천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추진

- 농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에 농산물의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설원에 작물은 일본·동남아시아 등을 주 시장으로 하여 수출량 측면에서 '1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향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수출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원에 농가를 대상으로 온실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 수출 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동 사업을 2016년 새로 도입하였다.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개요 >

- 지원내용 :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
- 사업대상 :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을 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 국고 50(보조20, 융자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스마트팜을 건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컨설팅을 통해 농가가 재배작물, 온실형태, 설치지역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현장 상황에 맞게 ICT 시설이 설치되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활용을 돕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국내 육성 배로 새로운 고객 창출

- 추석적기 신고 품종 적극 대처... 나주배 산업발전 기회 모색 -

- 나주시가 농촌진흥청의 추석적기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 사업으로 추석적기 신고 배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화산 배·황금 배 혼합 세트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한아름·조이스킨 배를 젊은 층이 찾는 배로 육성, 새로운 고객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강인규 시장은 “화산 배와 황금 배는 우수한 맛으로 수출 상품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수량이 적고 열과, 동녹 현상 발생 등으로 재배가 까다로워 농가 기피로 소량 재배에 그쳐, 일부 농가의 직판 수준에 머물렀었다”면서, “이에 지난해 추석을 겨냥한 화산 배, 황금 배 혼합세트 상품 6톤을 출시해, 서울 양재 하나로 클럽에서 판촉행사를 가졌고,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편, 시는 8월 중순에 수확하는 한아름 배의 경우 햇배 브랜드화는 전략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조이스킨 배는 적극 상품화시켜 젊은 소비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나주시는 선별비, 홍보비 등 유통활성화에 1억원, 묘목, 식재비 등 신규농가에 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화산·황금·추황배 출하계약 희망농가는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337-0129)에, 한아름·조이스킨·화산·황금배·슈퍼골드 품종에 대해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는 나주배연구회(☎335-3115)로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LF로컬푸드마켓 개점 2개월 만에 3억원 매출 달성

- 6차산업 우수상품과 생필품, 은행·ATM 구축, 한 번에 장을 볼 수 있어 -

- LF스퀘어 광양점 내에 운영되고 있는 광양원예농협 LF로컬푸드마켓(광양 농·특산물관)이 개점 2개월 만에 3억원의 매출 달성하며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시는 1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LF로컬푸드마켓이 신선하고 저렴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입소문이 퍼져 개점 2개월 만에 매출액 3억원을 달성하고 하루 평균 6백여명이 방문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같은 빠른 성장은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은 물론, 6차산업 우수상품과 각종 생필품도 구비해 한 번에 장을 볼 수 있는 틈새 시장으로 구상해 공략한데 있다.
- 또 쇼핑 외에도 금융업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과 ATM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고심해 온 것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 LF로컬푸드마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값싸게 판매해 보다 다양한 소비자가 찾는 매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LF로컬푸드마켓은 광양원예농협 본점에 위치해 있는 로컬푸드직매장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자 416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해 판매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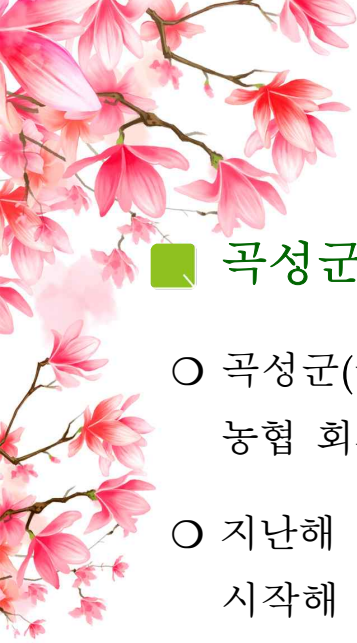


■ 담양군, 직불금 신청하세요

- 이달 말까지, 유기·무농약 인증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 대상 -

- 담양군은 3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직접지불제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법인으로, 지난해 신규 인증을 취득한 필지는 올해 갱신을 거쳐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금년 신규 인증 취득 필지는 내년도 사업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 ha당 지원 단가는 논·밭의 경우 유기·무농약 지속 30만원, 유기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무농약 지속 60만원, 유기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이다.
-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를 통한 지원이 이어진다.
- 무농약 농산물 생산으로 3년간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는 ha당 논 20만원, 밭은 50만원,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5년간 직불금이 지급된 필지는 ha당 논 30만원, 밭은 60만원의 지속직불금이 보조된다.
- 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문의는 읍·면사무소나 군 친환경농산유통과(☎061-380-2716)로 하면 된다.

* 출처 : 담양군



■ 곡성군, 『골든퀸 3호』 재배농가 교육 실시

-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석곡농협(조합장 김재경)이 3월 16일 석곡농협 회의실에서 골든퀸 3호 재배농가에 대한 2차 교육을 실시했다.
- 지난해 처음 재배한 골든퀸 3호는 탁월한 밥맛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한번 맛을 본 소비자들의 재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 이를 기반으로 곡성군과 석곡농협은 계약재배 면적을 곡성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계약재배 전 농가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2차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 한승준 석곡농협 전무는 “올해는 계약재배농가 전체를 골든퀸 3호 재배 전문 요원으로 구성하고, 농협에서는 재배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전국에서 최고가로 친환경 벼를 매입토록 하는 등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석곡농협에서는 전국 최고의 쌀 생산과 판매를 위해 3월 13일부터 농협중앙회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다.
- 농협중앙회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주창한 『우리쌀 팔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백세미는 전국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6년 석곡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골든퀸 3호는 백세미 상표로 1kg, 4kg 포장하여 양재동, 창동, 수완지구 하나로클럽과 농협유통, 근로자의 날 및 명절 선물세트, 인터넷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 출처 : 곡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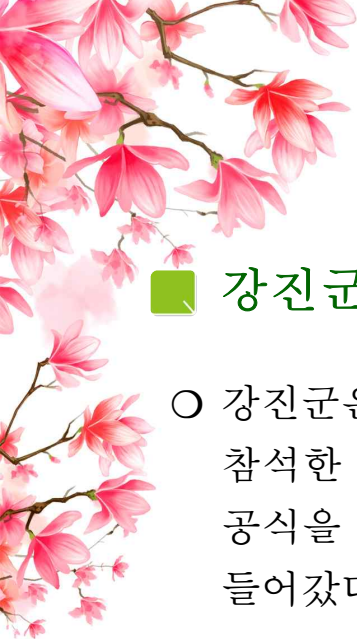


■ 고흥군, 안정적 농촌 정착 도우미 역할 특목

- 올해 300명 귀농 목표...다채로운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

- 고흥군이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 희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군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영농체험(실습)교육, 맞춤형 영농 정착교육,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군은 그동안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영농 창업 자금 지원 확대 △품목별 선도농가와 멘토·멘티제 운영 △영농 현장 체험실습 교육 △귀농인 영농기초 교육 등 매년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귀농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300명 귀농인 유치를 목표로 다양하고 체계화된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등 지역사회에 융·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아울러, “초기 귀농인 7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귀농 희망 도시민 40명을 초청 농업 현장 견학, 문화·관광·유적지 견학 등 군 귀농정책 홍보를 위한 팸투어 행사를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고흥군은 귀농인을 위한 차별화 된 귀농프로그램 운영으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975명의 도시민의 귀농을 유치했다.

* 출처 : 고흥군



■ 강진군,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 준공

- 강진군은 3월 13일 지역농업인과 농산업분야 관계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내에서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 농산업창업가공지원센터 설치는 지난 2015년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농업 6차산업화 및 농산업창업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추진됐다.
- 연면적 258㎡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7억 원이 투입된 지원센터는 해썹(HACCP)인증기준 시설이 구축됐고 농산물 가공장비 36종 40대가 다양하게 구비돼 분말, 음료, 잼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앞으로 강진군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까지 할 수 있어 가공을 통한 농산업창업 활성화와 농업 6차산업화를 이끌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강진군은 농산업창업가공 아카데미 등 다양한 가공 교육을 통해서 가공식품법인 육성 및 소규모창업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가공창업 코칭을 통해 6차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적극 나선다.
- 강진군은 최근 10년간 귀농정착이 1천여 가구 2천 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농산업창업에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강진·영암·장흥)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농산업창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간 기능 개선 『밀크시슬』 국산화 박차

- 노지 월동재배 성공, 고수의 작목으로 정착 기대 -

- 해남군이 간 기능 개선작물로 알려진 밀크시슬(milk thistle, 흰무늬엉겅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군은 지난해부터 밀크시슬의 재배법을 확립하기 위한 간척지, 노지, 하우스 포장 등 4,500㎡를 확보해 파종방법, 정식 시기별 구획을 정리해 시험 연구포장을 운영하고 있다.
- 1차년도 재배 결과 지난해 가을 정식한 포장은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할 정도로 생육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 파종은 여름철 더위에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종시기를 일반 작목보다 앞당겨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생산 수량은 1,000㎡(300평)당 70kg 이상의 종자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종자판매만으로도 350만원 넘는 조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올해는 밀크시슬을 3월 중순경 1차 정식해 노지에서의 병해충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생산성·경제성 분석과 간척지내 재배 가능성 등을 시험할 계획이다.
- 특히 논 재배법 개발로 벼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대단위 단지를 조성, 새로운 지역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내년 부터 농가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농산업 육성사업으로 한약진흥재단과 함께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밀크시슬의 국산화 사업은 해남과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주)새롭이 협동 공동연구를 추진, 실증재배를 통한 재배법 개발과 자동화시스템 구축, 응용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영암군, 2017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 공동 집하·선별장 등을 통한 영암무화과 품질향상 -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은 영암무화과 생산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시설 등을 설치하는 『품질관리』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는 2개년 사업이다.
- 영암군은 무화과 재배농가가 800여 농가, 재배면적이 416ha에 이르는 무화과 주산지이지만 산지수확 및 집하, 상하차 작업 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과다 소요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집하장소 등이 부족하여 출하 등에 애로를 겪어왔다.
-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집하·선별장을 확보하게 되면 여름철 출하 시 더위 및 하차시간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상품저하 문제가 해결 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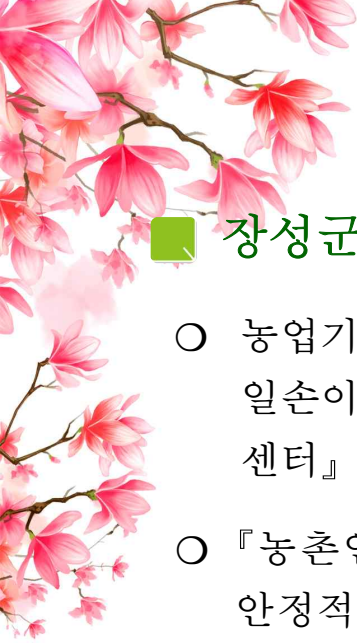
* 출처 : 영암군



■ 영광군, 브랜드쌀 판매 업무협약 체결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3월 14일 테마형 외식문화컨텐츠 기업 (주)이바돔 및 영광군 농협쌀공동사업법인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영광군 브랜드쌀 판매활성화를 위해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14일 영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바돔 김현호 대표와 영광군 김준성 군수, 영광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강선중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이번 협약으로 영광군 브랜드쌀 500톤(12억 상당)이 이바돔 전국 매장에 수급되는 등 영광군의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에 상호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바돔은 동반 성장을 기치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교류로 현재 영광군에 본사를 두고 전국 179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바돔의 숯밥 메뉴에 밥맛이 좋은 영광군 브랜드쌀 『신동진』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광군은 이번 (주)이바돔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물론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여 영광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영광군



■ 장성군, 일손 걱정 없는 『농촌인력지원센터』 문 열어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3월부터 장성농협과 삼서농협 2개소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촌 인력을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일손 수요가 몰리는 농사철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농산업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돼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 장성군에서는 1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장성농협과 삼서농협 두 곳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담인력 채용, 사무실 조성, 운영 방안 등 준비 작업을 거쳐 3월부터 인력소개 업무를 시작했다.
- 군은 두 기관이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비와 인력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농작업 장소까지의 이동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고려해 인력 수송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근로 인력들이 농사일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농작업 교육을 실시해 잠재적인 농촌 인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군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인력지원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과 농협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현실적인 인력확보 방안과 노동환경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면 농민들이 해마다 겪어 온 일손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농산업 분야 일자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구직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이용 사항은 장성농협(061-394-5100)과 삼서농협(061-399-1323)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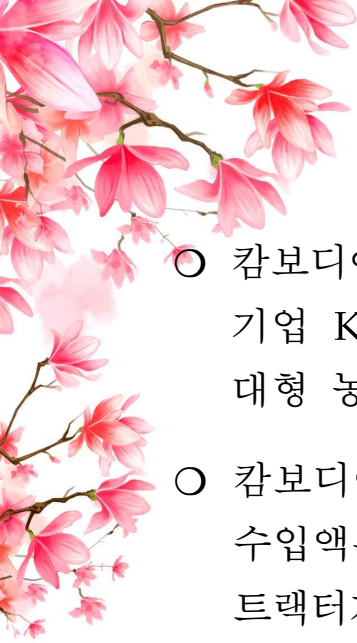
*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 캄보디아, 농기계 시장 전망

- 캄보디아의 주요 농산물은 쌀이며, 2016년 기준 450만톤을 생산해 54만톤을 EU 등에 수출함. 이외에 고무·카사바·오렌지·커피 등도 주요 생산 농산물임
- 캄보디아의 농기계 보유 대수 증가율은 수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음. 특히 2004~13년 가격이 저렴하고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경운기(Power Tiller)의 보급량이 648% 증가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농민이 농기계를 이용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캄보디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동력 경운기 34만 3,764대, 트랙터 1만 8,317대, 수확용 기계 6,605대가 누적 수입되었으며 농기계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기계 수요 확대 요인으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ELC(경제적 토지양여 제도) 및 대단위 농업 생산, 고무·사탕수수·카사바 등 현금 작물(cash crop)의 재배 규모 증가,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구매를 위한 소액 대출사업, 농업조합 확대 등이 있음
- 2015년 기준 탈곡·세곡기계와 곡물 및 채두류 분류·가공기계의 수입이 캄보디아 농기계 수입의 75%를 차지함
- 수입액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탈곡·세곡용 기계(HS code 8433)는 태국산이 가장 많으며 미국산, 중국산 순서로 수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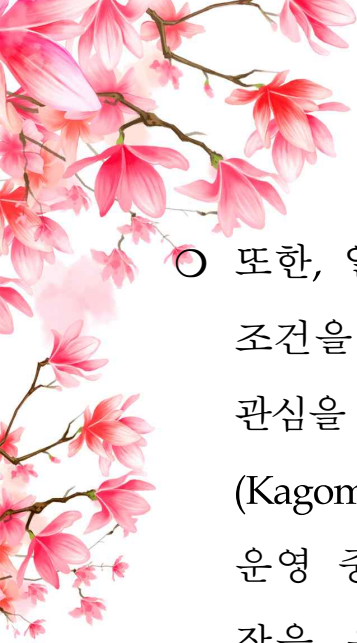


- 캄보디아에 수출된 태국산 농기계는 태국 기업이 제조하거나 일본 기업 Kubota의 태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것임. 미국에서는 주로 대형 농기계를 수입하여 사탕수수 등 대규모 농장에서 사용함
- 캄보디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트랙터(HS code 8701.90)의 총 수입액은 3,900만 달러였음. 태국·중국·일본·인도산 순서로 농업용 트랙터가 많이 수입됐으며, 2016년 캄보디아의 트랙터 수입 규모는 30%이상 확대됐음
- 캄보디아 현지 농기계 기업인 KN group에 따르면 경운기 등 이륜 트랙터가 소규모 농가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농기계임
- 캄보디아에 1만ha 이상의 대규모 농장은 18개, 5,000ha 이상의 농장은 28개가 있음. 기업형 농장의 수는 900개 이상이며, 이들은 100마력 이상의 미국산 대형 트랙터를 사용함
- 캄보디아에서 Kubota 농기계가 합리적인 가격, 내구성, 서비스 네트워크로 가장 인지도가 높음. John Deere도 캄보디아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및 판촉 행사를 진행하여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인도 Mahindra, 독일 CLASS, 일본, 중국 기업도 현지 파트너를 통해 농기계를 판매하고 있음. MTZ·Belarus 등 일부기업은 현지 조립 공장을 설립했으며 인도 ESCORT는 트랙터 쇼룸을 오픈하는 등 10여개 농기계 기업의 시장 경쟁이 활발함
- 캄보디아에서 판매되는 중고 농기계의 브랜드는 Kubota, Yamnar, Shibaura, Mitsubishi, Ford, Iseki 등이 다수임. 중고 농기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찾아볼 수 없음
- 중고 농기계 판매자에 따르면 캄보디아 농가는 한국산 농기계의 성능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 제품이 부품 수급과 수리가 용이하여 일본 제품을 더욱 선호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본, 식물공장에 기업 참여 확대

-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이 출판한 『세계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에 85억명, 2050년 97억명, 2100년에 112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현재 농업기술로는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전망함. 이에 기후·토양 등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공장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의 농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임. 미국 농업생물공학 기업 몬산토(Monsanto)는 인구가 많은 인도를 식량문제 해결 사업의 최우선 거점으로 선정하였음. 미국 구글(Google)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업 생산효율 제고 기술로 농업 사업에 진출하였음
- 건설용 기계·중장비 판매 기업 및 IT 기업의 농업 분야에 투자도 활발히 진행 중임. 중장비 판매기업 코마츠(Komatsu)는 농업용 기계 제조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였음. IT 기업은 농업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하드·소프트웨어 개발에 돌입하였음. IT 기업은 자동운전기술이 탑재된 농기계와 농산물의 생육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업 클라우드 기술에 주력하고 있음
- 수익성이 낮아 일본 농업에 진출을 주저하던 대기업의 자본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음. 도요타 자동차(Toyota Motor), 미쓰이 물산(Mitsui & Co.) 등 대기업은 일본 새싹채소 생산량 1위 기업 카지츠도(Kajitsudo)에 자본 투자를 진행 중임



- 또한, 일본 대기업은 자연재해에 따른 작물 피해가 잦아지며 재배 조건을 제어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식물공장 『그란파(Granpa)』에 관심을 쏟고 있음. 『히타치 제작소(Hitachi)』, 『닛키(Nikki)』, 『가고메(Kagome)』 등은 돔형 식물공장 『그란파돔(Granpa Dome)』을 개발·운영 중인 그란파에 출자를 결정하였음. 일본 최대 규모 식물공장을 운영한 기업 미라이(Mirai)가 파산하며 식물공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식량위기를 기회로 식물공장이 재조명되고 있음
- 2009년과 201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식물공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였음.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2016년까지 농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2,222개임. 이 가운데 건설업(226개), 제조업(98개) 기업 등 타 산업기업의 농업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식물공장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음.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선진사례에 기초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3. 20.(시카고 선물거래소)

□ 최저점 회복 이후 새로운 뉴스의 부재로 밀 가격 혼조세

○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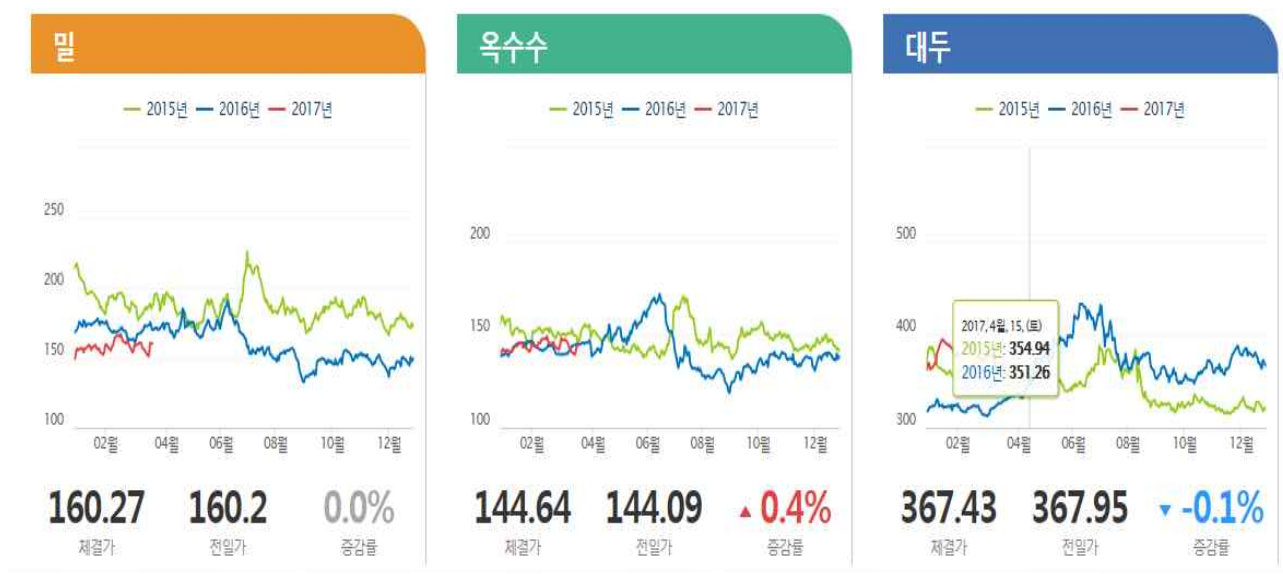
- 밀 선물 가격은 최저점에서 회복한 이후 새로운 뉴스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마감하였음. 구곡 밀의 풍부한 재고량에 따른 압력이 이번 주 중서부 지역의 영하 기온 및 평야 지역의 건조 기후로 인한 상승세를 상쇄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0.4%)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최저점에서 회복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그러나 남미의 기록적인 옥수수 수확 전망은 가격 상승을 제한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상황(▼0.1%)

- 대두 선물 가격은 브라질의 기록적인 대두 수확 전망으로 하락하였으나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음. 조류 독감이 테네시의 또 다른 조류 농장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두박을 포함한 가금류 사료의 수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가축질병 발생동향

□ 구제역 - 2월13일 이후 발생 없음

○ 전남 : 발생없음

○ 전국 : 9개소 (21농장 1,425두 살처분)

- 젓소 4농장 428두 (충북 보은 3건 328, 경기 연천 1건 100)

- 한육우 17농장 997두 (전북 정읍 6건 339, 보은 11건 658)

※ 위기단계 조정(3월 6일) : 심각 → 경계

□ AI 발생현황

○ 전남 확진 9개 시군 33개소

- 나주11, 강진5, 무안5, 해남4, 장흥3, 영암2, 구례, 장성, 진도

- 축종별 : 종오리10건(30%), 육용오리21(64), 산란계2(6)

○ 살처분현황 : 109호 200만수 (전국 910호 3,677만수)

○ 예방적 살처분 검사 중 13건

- 나주 7(오리), 장흥 3(오리), 무안 3(오리2, 육계1)

※ 전국 발생현황(농장) : 10시도 369건

- 경기123, 충북85, 충남60, 전북41, 전남33, 세종17,
강원4, 경남4, 부산1, 인천1

○ 이동제한

- 강진(2. 27.~3. 22.), 영암·무안(3. 10.~3. 22.),
장흥(3. 16.~3. 22.), 나주(3. 15.~3. 21),

○ 가금 입식 전 사전 승인제 이행 : 2주전 신고(계열사)

※ 2월 20일 이후 23건 중 16건 H5N8형 검출 (70%)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식물병해충 발견 현황이 한 눈에 지리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분포도 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전국의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포지도를 만들어 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 3월 16일부터 개통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기반으로 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은 전국의 병해충 발생농가 현황, 예찰 트랩 설치장소 및 병해충 발생면적과 발생지점간 거리, 상세한 지형정보 등을 지도상에 표출하여 직접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전국의 식물병해충 발견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획득한 최신의 정보를 신속히 등록·공유하여 병해충의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적기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래식물병해충 발견 시 공간지리정보를 접목한 긴급 조치구역을 설정·운영하는 시스템을 금번에 도입하여 신속한 현장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 생산자 단체, 수입식물 재배농가,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식물병해충 예찰 전문요원, 유관기관 담당자에게도 병해충 발견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신고전화 번호 : 054-912-0667(식물방제과 예찰담당)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텃밭에 식물 이름표 달아주세요


- 씨앗 심어 재배하는 식물 85종 정보 제공, 교육·체험용 텃밭에 유용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씨앗을 심어 키우는 식물의 관련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름표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 이용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일반인을 위한 정보 → 일반 자료실에서 씨앗부터 시작하는 텃밭정원 식물 이름표(이하 식물 이름표)를 내려 받으면 된다.
- 텃밭정원용 씨앗을 구입할 때 식물 재배에 필요한 정보 없이 식물 이름만 알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재배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한다.
- 특히 학교에서 교육 및 체험용 텃밭 정원을 운영할 경우 재배하는 식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식물 이름표는 온·오프라인에서 주로 판매하는 식물 씨앗 85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 각각의 이름표에는 과명, 분류, 식물명, 이미지, 학명, 영문명, 재배시기, 심는 간격, 난이도, 재배 환경, 월동 여부, 색상 등의 정보를 담았다. 이름표에 실린 재배정보는 노지 텃밭정원을 기준으로 했다.
- 또한 식물 이름표는 식물생육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다년생, 일이년생, 일년생 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해 표기됐다.
- 다년생 식물은 가우라, 꽃범의 꼬리, 델피니움, 디기탈리스, 라벤더 등 28종이다. 일이년생 식물은 개양귀비, 금어초, 금영화, 끈끈이 대나물, 니켈라 등 22종이다. 일년생 식물은 가자니아, 과꽃, 금잔화, 꽃담배, 꽃아마 등 35종이다.

- 다년생 : 몇 해를 계속 살면서 대개 뿌리만 살아남고 윗부분은 말라죽는 식물
 - 일이년생 : 가을에 씨앗을 뿌려 겨울을 넘긴 다음, 봄에 꽃이 피고 말라 죽는 식물. 또는 봄 또는 가을에 씨앗을 뿌려 겨울을 나고 이듬해에 꽃을 피운 다음 2년이 되면 말라 죽는 식물
 - 일년생 : 씨앗을 뿌려 1년 이내에 꽃이 피고 개체가 모두 죽는 식물
- 식물 이름표는 텃밭정원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육 및 체험형 텃밭정원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텃밭 모종 이름표 95종에 대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모종의 이름, 기능성 및 재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특히 교육 현장에 조성된 텃밭정원에서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식물 이름표



◆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식품에 도전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맛·품질·상품성을 고루 갖춘 쌀가공품 TOP 10을 선정하는 2017년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한다.
- 쌀가공품 품평회에 출품 가능한 제품은 '17. 2월 기준 시판중인 제품으로, 원료 중 쌀 함량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쌀 함량이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쌀과 대체관계에 있는 원료를 100% 쌀로 대체하는 경우도 출품 가능하다.
- 접수는 사업 주관협회인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0일(목)까지 받는다. 접수방법 : www.krfa.or.kr 접속 → 쌀가공품 품평회 신청 바로가기
- 이번 품평회에 출품된 쌀가공품은 소비자와 현장평가 위주로 품질·선호도·위생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유통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장성 높은 상품을 선발할 예정이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은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여 식감소비자 선호(디자인 등)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또한, 올해는 TOP10 선정제품을 쌀가공식품산업대전(5. 16.~19.)에서 선보이고, 선정 이후 기업의 마케팅 활동(홍보·판매 등) 및 소비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마케팅홍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 선정 제품에 대해서 농식품부 장관상협회장상 및 부상이 수여되며, 쌀가공품 관련 박람회 등에 우선참여, 영상제작 등을 통한 홍보,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청탁금지법 고민될 땐 『안심화분』 확인하세요

- aT, 청탁금지법 허용 화분 부착용 안심화분 스티커 배포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직무관련자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5만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화분』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 aT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aT 화훼공판장 화훼거래액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난의 경우 물량 12%, 금액 30%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 또한 소매거래 역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따른 소비감소로 인한 화훼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 aT는 지난 11월부터 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5만원 이하의 난에 부착하는 안심화분 스티커를 배포하여 관계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5만원 초과 꽃 선물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일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 관계자에 따르면 안심화분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반송되는 사례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구매율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간

전남농업정보

128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